

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 북한의 대중국 경제협력동향 파악을 위한 출장
- 출장 목적 :
 - 북한 나선특구지역의 북중 경제협력 현황 조사
 - 중국 창지투 개발 현황 자료 수집
 - 북한정책포럼 국제학술회의 참가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지 :
 - 중국 연길(국제학술회의), 훈춘(경제개발구, 해관), 도문(북중국경)
- 출장 기간 : 2011. 10. 17 ~ 20일(4일간)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영훈

II. 출장 내용

- ‘한중러 접경지역에서 보는 한반도 미래’ 학술회의 참가
- 중국의 북한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창지투개발 현황 자료 수집
- 도문, 훈춘, 방천 등 북중 국경지역 방문, 시찰
-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산림 및 농업상황 파악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주요 출장 결과

1. 주요 일정

주요 일정			비고
10/17 (월)	09:50/11:15	인천출발/연길도착	아시아나 항공
	14:00~18:00	학술회의 참석 - 한·중·러 접경지역에서 보는 한반도 미래	북한정책포럼 주최 장소: 연길 국제호텔
	18:00~21:00	한중 북한전문가 간담회	장동명 교수(요녕대) 김강일 교수(연변대) 김화림 교수(연변대) 기타 한인회 간부
10/18 (화)	09:00~12:00	훈춘-나선(나진-선봉) 북중협력현장 시찰 -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 (나선 연결통로) - 훈춘시 대외도로 건설현장 방문 : 훈춘-북한 나선시 도로 시공현장 : 권하대교 시찰	
	13:00~16:00	방천 - 두만강 소삼각 지역 개발개방 현황 시찰 - 3국 접경지역 시찰	
	16:00~18:00	도문으로 이동 - 중국-두만강-북한 접경 지역 시찰	
	18:00~21:00	초청만찬	이승률 (연변과기대 부총장)
10/19 (수)	09:00~11:00	간담회	
	13:00~17:00	용정, 중국농업지역 시찰	
	19:00~21:00	참가자 간담회	윤승현교수(연변대)
10/20 (목)	10:00	연길국제공항으로 이동	
	12:30/17:00	연길출발/인천도착	아시아나항공

2. 주요 조사 내용

가. 국제학술세미나

- 연길 국제관광호텔 회의실에서 개최
- 중국측 발표자의 주제발표 후 한국측 토론자가 토론
- 매일경제신문 2011.10.18일자 A4면에 기사화됨.

北·中 경협 新패러다임 열리는 중

[매일경제, 2011.10.18, A8, 엔지, 문수인 기자]

포럼에 참석한 엔지 현지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북·중 협력 단계가 창지투(창춘·지린·투먼)로 대변되는 동북3성 개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북·중 협력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말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정책포럼이 17일 중국 엔지시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엔지시는 중국 동북3성 개발의 핵심 지역이다.

이곳을 개발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경제·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춘 투먼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들 도시 주변에는 도로와 철도가 새로 깔리는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북·중 경협 앞날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펼친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현지 전문가인 윤승현 연변대 교수는 "나진·선봉 지역 개발과 관련해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과 공동 개발·공동 관리라는 말을 썼다"며 "이는 북한이 사고를 전환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례로, 북·중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동 개발·공동 관리란 말은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창지투 개발과 나진·선봉 개발을 연계하는 전략에 맞춰 나진 지대를 발전시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북·중 경협이 활성화하면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라면서 "훈춘은 연변 지역 두만강 개발의 관문으로서 북한 변화에 촉매제 구실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화림 연변대 경제관리학원장은 북·중 협력 성공의 원인을 북한 체제와 연관지어 분석했다.

김 원장은 "중국은 북한 체제를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아 접경지역을 통한 상호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전문가인 장동명 랴오닝대 교수도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예로 들며 "풍력 태양광 등 민생협력에 적극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중 간, 북·러 간 경협은 북핵 문제 등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뒷면에 계속)

(앞면에서 계속)김 교수는 "북한은 3대 세습 과정에서 주민 생활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북·중 경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도 북·중 경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여건을 고려하면 북·중 경협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상업적 기준에서 추진된다면 미래가 밝겠지만 정부 협력으로 추진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중앙정부 개입은 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간 협력은 북한 체제 유지에 든든한 자금줄을 제공할 뿐"이라며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 경협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 대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북·중 경협 틀이 동북아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별도 공동체 지향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내에 새로운 협력이 생기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부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한국농촌연구원 북한·중국농업팀장은 "1998년 나진·선봉 개발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이후 실제 진전은 없었다"면서 "북·중 경협에서도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북한이 과연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두고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과거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립 서비스로 일관한 적이 많았다"면서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둔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제대로 지켜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북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자원 조달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연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인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인들이 북·중 경협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는 이번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연변 투먼시에서 고무장갑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김재구 태창고무 대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인력난을 토로했다.

1994년부터 이곳에서 기업을 해왔다는 김 대표는 "최근 인력 10명도 채용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등 외지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연변 지역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빈자리를 60대 고령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이 때문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노동력을 데려와 쓸 수만 있다면 이는 기업과 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 방문지 개요

1) 연변조선족자치주

- 위치 : 중국 동북지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함
 - 러시아와 북한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음
- 면적 : 42,700km²(길림성 총면적의 1/4)
 - 경상남북도 + 충청남북도 규모
- 지형 : 산지가 주변 둘러쌌, 그 사이에 분지와 구릉이 발달
 - 산지(54.8%), 고원(6.4%), 곡지(13.2%), 하곡평원(12.3%), 구릉(13.3%)
- 행정구역 : 6개 시와 2개 현으로 구성
 - 6개 시 : 연길, 도문, 용정, 화룡, 훈춘, 돈화 - 2개 현 : 왕청, 안도

2) 훈춘

□ 개황

- 위치 : 연변 지역 동남쪽 두만강하류에 위치한 변경도시
 - 3개국(중-러-북) 접경지역 도시임
- 면적 : 5119.7km²(제주도의 약 3배)
- 인구 : 223,416명(2009년 말)
 - 한족 51.73%, 조선족 38.31%, 만주족 9.45%, 기타민족 0.51%
- 자연자원 : 자연자원 풍부, 개발전망이 높음
 - 석탄매장량 12억t, 황금매장량 60t, 목재축적량 5128만m³
 - 물자원량 24억 3200만m³, 800여 가지 야생식물자원 분포

□ 훈춘 개발계획

1단계 1992~1995		2단계 1996~2000		3단계 2001~2010
관광시설 건설	->	도시 종합기능 건설	->	동북아 교통운수 및 국제통신 건설
국경경제합작구건설 기초건설: 교통 등		국제자유무역구건설 대외통신건설		국제금융, 국제무역, 경제합작 중심
국경개방도시		현대화 국경도시		동북아중심도시

○ 훈춘시 개발계획 진행

- 자연환경 및 3개국 접경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이점 활용한 관광 개발
- 2011년 5월, 중-러-북 3국 연계 순환관광 시작되었고, 중-러-일-한 잇는 환동해 크루즈 여행 시범 운영
- 훈춘을 전진 기지로 하는 물류 거점 형성 및 라진항 통한 동해 진출 모색, 국제물류단지 및 선진개방형 변경세관도시 건설

○ 향후 훈춘시 개발계획

- 2016년까지 훈춘에 대단위 '동북아 변경 무역센터' 건설, 한국, 일본, 홍콩 등 외국인전용 산업단지 조성

□ 훈춘 개발 가능성

○ 동북3성 개발계획의 실행

- 중국 국무원의 「동북지역진흥계획」에 따라 두만강 지역 산업화 촉진, 훈춘 대도시화, 대외무역 강화
- 중국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한 개발 전략 추진
- 동해를 통한 해상수송로 건설 등 동북공업지역 진흥계획 포함

○ 「훈춘-나진」 구간 도로 건설 통한 북-중 경협 기반건설

- 이를 통해 나진항으로의 물류 이동 원활 작업 착수
- 2005년부터 중국은 동북 3성의 동해 출로 확보위해 나진항 운영권 확보, 나진항 및 「나진-원정」 간 도로 현대화에 관심 높음
- 중국은 2028년까지 나진항 1호 부두 독점 사용권·개발권 확보
- 2009년 중국은 「나진항-원정리」 간 도로(67km) 현대화 작업 착수
- 2010년 중국은 취안허-원정리 일대를 연결하는 다리를 전면 개보수
- 2011년 10월부터 도로 사용가능하며, 도로 사용시 훈춘에서 나진항 부두까지 40여분 소요되며, 물류 수송 시간 단축
- 북-중간 항만 프로젝트는 라선공동국제물류벤처회사가 실행하며, △50km 고속도로 재건, △라진항 재건 및 건설, △훈춘-나진 도로 내 서비스사업 건설, △라진시 해안지대(5km) 개발

○ 나진항 개발 계획 추진

- 중국은 나선경제특구 내 나진항을 통해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자 함
- 나진항은 동북3성의 출해구이며 한반도중단철도(TK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등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큼

<그림> 훈춘, 권하, 원정, 나진 간 물류 흐름도



3) 연길

○ 위치 : 중국 길림성 동부

- 백두산 관광 길목, 동쪽에는 두만강 및 도문이 있음
- 외곽에는 용정이 위치함

○ 면적 : 1,340km²(연변 총 면적의 3.14%)

- 시가지구역면적 23.8km²,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구성

○ 인구 : 약 400,000명, 인구의 70%가 조선족

- 특성 : 연변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금삼각(金三角) 형성 3개 거점(중국 연길시, 북한 청진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나임
- 역사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 중국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임
 -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따라 한글을 사용하고 있음
 -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100여년 전 부터임
 - 조선 말기 한국인들이 이주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음

4) 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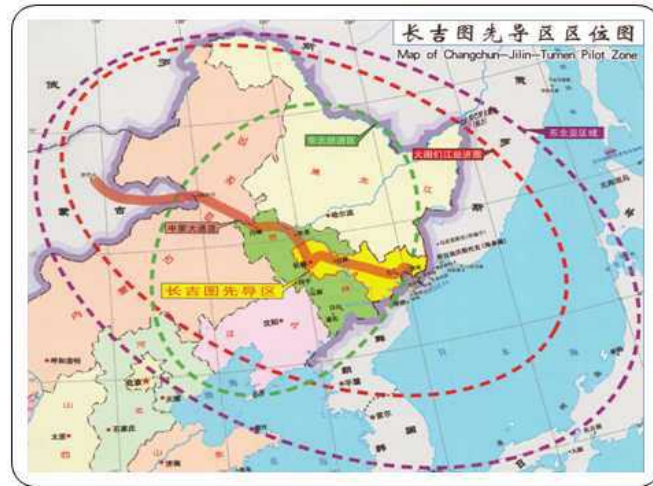
- 북-중 경협 확대
 - 2010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청진항 개발 및 독점권 확보함
 - 청진항은 「하얼빈-도문-북한」을 연결하는 교역의 관문임
 - 동북 3성 곡물·광물을 중국 남부로 운송하는 물류기지로 활용
 - 중국 정부는 「도문-청진항」 간 철도(170km) 보수비용으로 1천만 달러 차관 형태로 북한dp 지원할 계획임

5) 방천

- 위치 : 훈춘시의 동남방향 (훈춘시에서 75km, 1시간 정도 거리)
- 면적 : 20km²,
- 방천, 3국 접경지역
 - 우정의 철교(일명)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연결됨
 - 우정의 철교는 북한으로부터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를 연결하고 있음
 - 나선-러시아 간 화물열차가 하루에 두 번 운행

다. 중국 창지투-북한 나선특구 연계개발계획

<그림> 중국 창지투 개발권역



<그림> 창지투개발계획의 전략과 주요 내용

장길도계획의 초기 추진 과정	
2007년 1월 18일 주전하오 총서기 집행성 고찰	- 집행성은 노공업기지 진흥에서(老工业基地振兴) 조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개척·개발과 과학기술을 강화하고 선진화하여 집행성과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라고 강조
2007년 8월 집행성 중앙정부 장길도 계획 제출	- 창자바오(崔家堡) 총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지시 - 중국경제개혁개방위원회는 집행성 방문 회담회·자문 등 실시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집행성 장길도계획 대내외개방의 새로운 모형을 높이 평가 및 집행성 자원외 총 더 자세한 발전 위한 요구
2007년 8월 3일 제3회 중국-조선 중국어국제투자구역 발발회 개최	- 제3회 중국어국제발달총합 - 장길도 지역 개발을 이끌어 갈 선진구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자녀의 국제협력을 이끌어 것이다 라고 자문 발표 - 장길도 지역을 고속도로선에 따라 연결하여 3만km ² 면적, 인구 770만명, 이 지역에 장길도 개발선도로 건설 - 5~10년 간 장운-집행성 계의 일치화(horizontal integration)로 주중(主中)하고 연운조선총자치주의 연운-공정-도(平壤)경계와 일치화(一致化)를 실현하여, 통운을 국제화·현대화 도시로 건설. 따라서 통운을 개발 승리의 장구로, 연운-도(平壤)전조기지로, 장운-집행성 연운으로 하여 이 지역이 중국지역의 중심지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통운을 개발으로 중국지역 대외개방의 새로운 장구로 건설. 이는 중국내 내륙성의 대외개발 선도로, 신흥(新興)산업시범구(示范區) 및 성장경제중심구(增长极)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
장길도계획의 본격적인 추진 과정	
2008년 6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에서 1999년에 편성한 중국-무안장지역 개발계획 수정(1차는 UNDP와 주도하여 1992년, 실행, 2차 1999년)
2008년 10월 13일	집행성정부, 국경에서 중국-무안장지역, 경제개발계획 및 장길도 선도로 계획요청 전문가 회담회 개최
2008년 11월	중앙부처, 2008년 2차에 걸쳐 집행성 방문 조사 이후 장지협상회 11기 1차 2차 회의로 장길도 개발개발 선도로 건설 제안
2009년 4월	집행성 자원외 조사고찰 및 전문가 회담회 수 차례 실시, 장길도 개발개발선도로 구획의 과정과 실시해 관한 건의(圖庫開發方案與圖庫開發土地資源開發的建議) 구성
2009년 8월 30일	국무원 중의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
2009년 9월 8일	중국 국무원, 중국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5호 발표, 국무원의 중국지역 총 노공업기지 진흥전략에 관한 실시해 관한 건의(圖庫開發方案與圖庫開發土地資源開發的建議) 25호(2009년 33號, 당국 드게 복 추진 국교
2009년 9월 24일	중국국경 집행성 등주과 집행성정부 간 1,000만 위안 지원에 관한 전략적 협력 합의 가조상에서 장길도 개발개발 선도로 국교로결정, 정식 지침(2009년 2월 중국국경과 집행성 정부 간 1,000만 위안 지원에 관한 전략적 협력 체결)
2009년 10월 24일	집행성 장지협상회 제10회 33차 주선회의, 장길도 개발개발선도로 구획의 과정과 실시해 관한 건의(圖庫開發方案與圖庫開發土地資源開發的建議) 통과
2009년 11월 18일	국무원, 장길도계획 정식 반포, 국경에서 국내외 언론보도 발표(제3차 중국-무안장지역 개발계획으로 정식 입안)

<그림> 창지투계획 건설계획 및 연계개발계획

[illegible]

<그림> 창지투계획 8대 중점 사업

[illegible]

<그림> 창지투계획의 대외 통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총투자금액	건설기간	비고
길림-삼림-중진 고속도로(47km)	28억 원	2015년	북한 관련
봉천-길림-리진 고속도로(39km)	23억 원	2015년	
하얼-남평-중진 고속도로(50km)	30억 원	2015년	
보문-남평-두만강-하산 철도 합장개조(126km)	24.3억 원	2020년	
하얼-남평-부안 철도(53.5km)	16억 원	2015년	
보문-리진 철도 합장개조(158.8km)	12.7억 원	2020년	
자상문-송봉 철도(보상구 건설(2.5km) 철도 복구건설)	1.5억 원	2020년	
길림-보문 사탄자 개산문 삼합 남평 봉상구 그림 건설(2152km)	5억 원	-	
북한 관련 프로젝트 총 투자액 합계	160.5억 원 (23.7억 달러)		
봉천-중진-봉수령 봉상구 건설	2억 원	-	북한 비관련
봉천-장청자-불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14km)	8억 원	2015년	
하얼-인정지 역 교통기초시설 합장(봉천 철도봉상구 불합)	3억 원	-	
프로젝트 투자액 총액	173.5억 원 (25.6억 달러)		



<그림> 창지투계획의 권역과 접근



창지투계획과 접경지역의 변화

● 장길도계획 추진 성과

- 장춘과 킬림의 도시 통합
- 연용도 도시 통합
- 두만강지역 협력 추진

● 킬림성 소재 개발구 총 105개(각 급, 각 종류별)

- 2009년 킬림성 지역 개발구 및 공업집중구 GDP 4114.69억 위안
 - 동년 대비 14.51% 증가, 킬림성 성 GDP 점유율 57.12%
- 2010년 말까지 국가급 개발구 총 6개, 성급개발구 총 45개, 공업집중구 54개
 - 2011년부터 국가급 개발구 총 8개, 성급개발구 총 43개, 공업집중구 54개
 - 앞으로 더 추가할 추세

1. 장춘고신기술개발구: 1991년
2. 킬림고신기술개발구: 1992년
3. 훈춘변경경제합작구(킬림호춘수출가공구): 1992년
4. 장춘경제기술개발구: 1993년
5. 킬림경제기술개발구: 2010년 5월(장길도 선도구 실시 후)
6. 연변고신기술개발구: 2010년 11월(장길도 선도구 실시 후)
7. 사평흥취경제기술개발구: 2010년 11월(장길도 선도구 실시 후)
8. 장춘자동차산업개발구(國家高新技術開發區): 2011년 1월(장길도 선도구 실시 후)
 - ※ 공주령국가농업과기원구: 2010년 1월(장길도 선도구 실시 후)
 - 지역별 국가급 개발구 수: 장춘 3개, 킬림 2개, 연길 1개, 훈춘 1개, 사평 1개,
※ 공주령 1개

- ▶ 킬림성에서의 개발구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산업 구조조정을 의미
- ▶ 장길도 선도구 지역으로 장춘, 킬림, 연변지역으로의 고신기술개발구 즉, 하이테크 개발구의 연계는 산업 벨트 형성으로 연결
- ▶ 개발구 경제발전 방식으로 장길도 지역 경제의 발전 도모
- ▶ 러시아 및 북한 지역의 산업연계 - 자유무역지대 건설 및 연계

길림성의 12차 5개년계획 개요(2011-15)

첫째, 공업화와 도시화 및 농업현대화 세 가지 변화원칙에 의거 프로젝트 발을, 지역투자 촉진

- 공업화-중화학공업 위주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발전
- 도시화-도농간 조화로운 통합, 길림성의 중추 장춘-길림 중부지역 발전 주력
- 농업현대화-농업생산력 제고와 농민수입 증대 목표, 기초인프라 확립 및 현대농업체제 설립

둘째, 장춘-길림 일체화(長春一體化)는 길림성 지역개발규획의 핵심, 성 중부지역의 핵심도시인

- 장춘과 길림을 중심으로 도시군 형성
- 장춘-길림 도시간 철도(長吉城際鐵路)

셋째, 동북3성 중 유일하게 러시아·북한과 접경, 12·5기간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심화

- 2009년 9월 비준 '중국동북지역과 러시아극동 및 동시베리아지역협력규획강요'
- 길림성을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거점지로 기능하고자 함
- 2010년 1월 제정 '장길도 개발계획 실시방안'· 길림성은 국가간 경제협력단지, 종합보세구 및 수출가공단지 건설과 항구 확보를 통한 동해 진출방안 등을 주요 프로젝트로 제시

▶ 장길도 연구센터

▶ 길림성 장길도 관광산업 발전 연구센터

<그림> 북한의 황금평, 나선특구 개요



<그림> 북한의 나선특구개발계획 개요

